

集團內 疎外者의 特徵에 관한 研究

李 永 澤

A Study on the Traits of the Alienated Within a Group

Lee Young-Taek

〈目 次〉	
I. 序 言	2. 道 具
1. 研究의 必要性	3. 方法 및 節次
2. 研究의 目的	4. 資料處理
II. 理論的 背景	IV. 結果 및 論議
1.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疎外의 意味와 特徵	1. 學業成就度比較
2. 自我概念	2. 自我概念檢査結果比較
3. 學業成就度	V. 結 言
III. 研究方法	參考文獻
1. 對 象	英文抄錄
	附 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gain useful data for working out a scheme for the guidance of the individual's human relations by finding the traits of the alienated within a group in comparison with the popular within the group. For the purpose, two concrete study problems are raised as follows;

1.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learning achievement between the alienated group and the popular group?
2.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self-concept between the alienated group and the popular group?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lienated group and the popular group were chosen through a sociometric test for each department. Also, a self-concept test was carried out

for the two groups. The test results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t-test,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learning achievement was significant between the alienated group and the popular group.
2. According to the t-test of the self-concept test result, the difference in Total Positive Self Score(T.P.), Self Identity Score(1), Self Behaviour Score(11), Physical Self Score(A), and Family Self Score(D) was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3. According to the t-test of the self-concept test result, in the boarding departmen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Total Positive Score(T.P.), Self Identity Score(1), Family Self Score(D), and Social Self Score(E) between the alienated group and the popular group. And, in the non-boarding departmen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only in Self Identity Score(1)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mentioned above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alienated group is inferior to the popular group in learning achievement.
2. Compared with the popular group, the alienated group shows such traits as maladjustment, inferiority and passiveness. Bu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ethical criterion between the two groups.
3. The alienated group in the boarding departments shows more maladjusted among family members and gives more attention to the alienation in human relations than the alienated group in the non-boarding departments. Bu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inferiority the two groups show.

From this study of the traits of the alienated group within a group,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1. It is necessary to give a continuous guidance to the student of low learning achievement for learning improvement.
2. It is necessary to enhance self-confidence to the alienated through group counselling, which is supposed to get rid of maladjustment, inferiority and passiveness.
3. It is necessary to give a group guidance to the alienated for the human relations among family members.

I. 序 言

1. 研究의 必要性

現代社會의 特徵의 現象 중의 하나는 人間을 人間으로부터 疎隔(Alienation) 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O'Banion, O'Connell, May 등은 現代人의 人間關係란 거의 모두가 假面關係에 不過하다고

했다. E. Berne의 “게임의 관계”, Jaurard의 “役割關係”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現代人은 人間中心이 아니라 儀式과 狀況中心의 行動, 즉 社會와 文化에 의하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관에 박힌 行動을 演出하고 또 役割을 수행하는, 즉 人間보다 役割 그 자체를 더 重視하고 있다. 이러한 現代人의 人間關係는 人間의 人間에 대한 긴밀한 關係를 결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孤獨感, 無意味, 無規範, 自己疎遠 등은 人間들 間의 「接觸의 缺如」에서가 아니라 接觸의 過剩에서도 由來하며 그런 意味에서 現代人은 「孤獨한 群象」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Haigh는 現代人을 社交的이고 人道的인 外樣을 하고 있음에도 정서적으로는 他人間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存在로 보았고¹⁾ E. Fromm은 現代人의 核心的 苦悶은 自然, 自己自身 및 他人으로부터의 疎隔에 있다고 했다.²⁾

人間은 이웃들과의 共同生活과 文化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產物이다. Lindsey가 사람의 人格은 다른 사람들과의 緊密한 關係속에서 또는 共同生活 속에서 비로소 發展된다고 한 바와 같이, H. S. Sullivan이 人間有機體는 극도로 柔軟하고 順應性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人間關係狀況이 생길 때 마다 性格이 變化된다는 것 즉 사람은 주로 人間關係를 통해서 動物的인 有機體로부터 人間の인 個人으로 變化된다고 말한 바와같이³⁾, 個人의 人間關係가 어떻게 形成되느냐에 따라 그의 人間性 形成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즉 個人의 人間關係가 滿足스럽고 원만할 때 개인은 그러한 人間關係의 經驗을 통하여 한 人間으로서 바람직한 成長發達을 하게 될 것이다. 人間關係는 호오손實驗 以後 組織의 目的達成에 영향을 주는 重要的 要因으로 看做되고 있다.

이와 같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人間의 人間에 대한 斷切現象으로서 나타나는 人間關係는 人間을 人間으로부터 疎外되게 만들며 그로 인해 그 個人의 健全한 人間性發展 뿐만 아니라 그 集團의 目的과 理想의 實現을 어렵게 만드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人間으로부터 고립된 疎外現象은 大學社會에서는 存在할 것이며, 大學社會에서 疎外된 者는 學校生活을 成功的으로 營爲하기가 어렵고, 疎外者가 많으면 學校全體의 勉學霧圈氣造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疎外者에 관한 研究는 그 個人의 人間の 發展을 위해서나 그가 속하는 學校全體의 勉學霧圈氣造成의 一還으로서도 必要的 課題라고 하겠다.

2. 研究의 目的

學校社會 內에 있어서의 個人의 社會的 受容度를 把握하여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을 選定하고 이 두 集團間의 차이를 發見比較하여 疎外者의 特徵을 발견함으로써 個人의 社會性指導를 위한 方案을 講究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 이 研究의 目的이다. 이를 위한 具體的인 研究 課題는 다음과 같다.

- 1) 人氣者 集團과 疎外者 集團 間에 있어 學業就成度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人氣者 集團과 疎外者 集團 間에 있어 自我概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 李炯得, 人間關係訓練의 實際, 서울: 中央適性 出版部, 1980, p. 20.

2) 徐鳳延·李寬鎔: 林承權, 精神衛生, 서울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5, p. 4.

3) 李相魯·李寬鎔(譯), 性格의 理論, 서울: 中央適性出版部, 1981, pp. 204-205.

II. 理論的 背景

1.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疎外의 意味와 特徵

現代社會의 가장 特徵的인 現象의 하나인 疎外는 現代社會를 分析하는 中心概念이며 人間을 理解하는 出發이며 現代社會를 構造機能的으로 分析하는 核心概念이다. 그러기에 疎外問題는 神學, 心理學, 精神醫學, 社會學, 政治學, 經濟學, 歷史學, 文學, 文化人類學 및 教育學 등 여러 分野의 研究對象이 되어 왔고 이에 따라 疎外의 意味內容도 다양하다. 한편 疎外는 現代에 비로소 나타난 現象이 아니며 과거로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人間實存의 문제로 계속될 歷史的 現象이므로 疎外의 意味內容도 時代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疎外의 一般的 意味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疎外의 語源을 살펴보기로 한다. 疎外의 概念은 멀리 舊約聖書, 新約聖書 및 Plotinos의 流出說에 그 淵源은 두고 있다고 하나 近代의 意味의 疎外概念은 社會契約論者인 Rousseau, 獨逸觀念論者들 특히 Hegel과 Feuerbach 및 Marx 등에서 비롯된다.⁴⁾

그런데 '疎外'라는 말은 Hegel 哲學의 重要術語인 Entäußerung와 Entfremdung의 譯語인데 이 獨語는 다시 英語 alienation(혹은 estrangement)의 意味內容을 이어 받은 것이고, alienation은 '他者에 속한다'의 意味를 갖는 羅典語 alienus에서 由來된 말이다.⁵⁾ 보통 辭典에서 entäußern (外化한다), entäußerung(外化)의 뜻은 '손에서 놓는다'(to part with), '放棄하다, 緣을 끊는다'(to renounce), '던져 버리다, 벗어 버리다'(to cast off), '팔다, 팔아 버리다'(to sell), '權利나 財産을 양도하다, 꺼려서 멀리하다'(to alienate) 등이다.

그런데 이 끝번체의 英語 'to alienate'(양도하다, 꺼려서 멀리하다)가 Marx가 말하는 entäußern의 뜻(사람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의연히 그 사람과 서로 맞서 實存해 있다', '自己 行爲의 結果로 어떤 것이 자기 손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옮겨진다')와 '어떤 物件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라는 觀念을 結合하는 唯一한 英語이다. 즉 英語의 alienation과 獨語 entäußern은 양자 모두 '팔아 넘김, 所有權의 移讓—이것이 同時에 放棄'(a sale, a transference of ownership, which is simultaneously a renunciation)라고 하는 觀念을 적어도 하나의 可能性으로 가지고 있다. 단지 entäußern은 alienate보다 더 강한 強度로 '나 自身에 대하여 外的이게 한다'(making external to oneself)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편 entfremden(疎外한다), entfremdung(疎外)의 보통 辭典에서의 뜻은 '疎外하다'(to estrange) '꺼려서 멀리하다'(to alienate)인데, entfremden, entfremdung에 妥當한 엄격한 英譯語는 estrange, estrangement이다. 그 理由는 entfremden은 alienate가 가지고 있는 財産의 讓渡(tra-

4) 安亨寬, 人間の 自己疎外와 그 克服의 問題, p. 9, Jachin Israel, Der Begriff Entfremdung, Aus dem englischen Übersetzt von Marga Kreckel Crowohlt Taschenbuch Verlag Gambll, Hamburg, 1972, s. 32참조.

5) 崔載壽, 헤겔의 生涯와 哲學, 以文社, 1980, p. 121. 安亨寬, 上揭書, p. 9.

nsfer)를 말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entfremden은 alienate와 단 하나의 意味 즉 ‘꺼려서 멀리하고 있다’라든가, 어떤 사람이 ‘꺼려서 멀리함을 당했다’라는 의미에서만 같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로 entäußeren, entäußerung을 alienate, alienation으로, entfremden, entfremdung을 estrange, estrangement로 翻譯하기도 한다.⁶⁾ 그러나 실제로 Marx는 entfremdung와 entäußerung을 같은 빈도로 區別 없이 사용하고 있고, 다만 語源의 으로 entäußerung이 所有權박탈, 상실의 뜻을 보다 많이 나타내는데 反하여 entfremdung은 estrange(疎遠하다)의 觀念을 보다 더 강조한다. Hegel도 특별히 兩者를 區別치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兩者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一般의이다.

위와 같은 語源을 가진 疎外의 뜻이 現代社會의 疎外現象을 說明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社會心理學者 E. Fromm은 疎外를 “人間이 自身の 경험中에서 自己自身을 낫선 사람 인양 경험하는 經驗樣式”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⁷⁾

이와 같은 語源을 가진 疎外는 視角과 立場에 따라 다양하게 理解되고 있다. 우선 疎外現象에 대한 價値評價에 있어서도 否定的인 意味로 이해되는 경우가 一般의인데, 이 立場에서는 疎外를 現代社會의 가장 심각한 病理的·危機的 現象으로 보고 그래서 疎外는 克服되어야 하고 治癒되어야 하며 解決되어야 하는 人間의 問題요 社會問題라는 것이다.⁸⁾ K. Marx, Karen Horney, Paul Tillich 등의 立場이 이 경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疎外의 意味를 肯定的인 意味로 理解하는 哲學的 人間學의 立場도 있다. 이 立場에서 疎外란 보편적인 人間의 條件, 人間實存의 樣相으로서 人間의 永遠한 本質이나 運命으로 把握되고 있다(Arnold Gohlen, H. Plesner 등).

Orega에 의하면 疎外는 반드시 否定的인 것만은 아니다. 그는 우리가 自己自身을 喪失한 事實에 대해 不安을 느끼고 自己를 되찾으려고 努力하는 것은 우리 人間의 비극적 宿命이긴 하나 그것은 同時에 우리 人間의 가장 빛나는 特權이기도 하다. 이때 우리 人間이 궁극적으로 追求하는 實在한 根源의 存在(radical reality), 즉 우리의 生, 人間의 生이다⁹⁾라고 말하고 있다. K. Hoover에 의하면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逃避할 수 없으나 이 환경은 우리가 직면하는 選擇의 可能性을 制限할 뿐이지 個人이 가지고 있는 獨創性이나 自由의 役割을 根本的으로 制限하는 것을 아니다.¹⁰⁾ 왜냐하면 人間에게는 生에 있어서의 모든 決斷이 根本的으로 個人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 決斷은 가장 孤獨한 狀況에서 決行되기 때문이라고 한다.¹¹⁾ 그러므로 우리 人間이 根源的 實在에 대한 궁극적 追求의 過程에서 오는 外疎나, 根本的으로 個人에게 맡겨진 生에 있어서의 決斷이 가장 孤獨한 狀況 즉 疎外된 狀況에서 決行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疎外는 否定的으로 볼 것이 아니라 生에 대한 直摯性과 誠實性的의 表現으로서 肯定的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疎外의 意味를 人間의 마음의 狀態로 보는 主觀主義의 疎外論의 立場도 있다. 즉 疎

6) Marx의 「經濟學, 哲學手稿」의 모스크바版 英譯者인 Martin Milligan이 그 例이다.

7) E. Fromm, *The Sane Society*, London, 1976, p. 111.

8) 崔定雄, 現代人의 疎外와 教育, 學術 심포지움 發表論文集, 曉星女大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83. p. 57.

9) 鄭文吉, 疎外論 研究, 서울:文學과 知性社, 1980, p. 265.

10) 上揭書, p. 266.

11) 上揭書, p. 266.

外는 人間實存의 根源의 神精이라고 하는 人間存在論의 疎外가 있으며(Descartes, Hegel, Heidegger, Sartre), 이에 反하여 疎外는 人間의 마음의 狀態가 아닌 客觀的인 社會現象이라는 社會現象論의 疎外의 意味로 理解하는 立場도 있다.

또 疎外의 意味를 무엇으로부터의 疎外이냐라는 疎外의 主體를 基準하여, 1) 個人, 2) 社會, 혹은 集團, 3) 人間外的인 事物이나 生活 및 活動樣式으로 分類하여 把握하기도 한다. 1) 疎外의 主體가 個人일 경우 이를 個人的 疎外라고 하겠는데 個人的 疎外는 다시 自己 自身이 他人으로부터의 疎外(즉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따돌림)와 自己가 自己 自身으로부터의 疎外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그 個人은 疎外를 인식하기도 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後者は 自我意識이 缺如되고 正體危機(Identity Crisis)를 갖는 者로서 흔히 非正常者(The abnormal)이거나 로보트人間으로 看做된다. 2) 疎外의 主體가 社會 혹은 集團일 경우, 이를 社會的 疎外라고 하겠는데 이는 例컨데 下流階層이 中·上流階層으로부터의 疎外意識이며, 3) 人間外的인 事物이나 生活 및 活動樣式的 疎外는 物質的 疎外라고 하겠는데 例컨데 K. Marx의 觀念인 自己가 生産해낸 財貨·商品으로부터의 疎外意識이다.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疎外의 意味는 여러 視覺에서 다양하게 論議될 수 있으나 다시 1) 社會心理學的, 2) 精神醫學的, 3) 社會學的, 4) 社會哲學的, 5) 神學的 및 6) 教育學的 側面에서 疎外의 意味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一瞥하기로 한다.

1) 現代의 社會心理學的 側面에서는 neo-freudian인 E. Fromm의 견해에 따라 疎外의 意味를 알아 보기로 한다. 人間은 그의 基本欲求(Basic Needs)를 充足하는 過程에서 社會와의 關係를 重視한다. 그의 人間欲求가 充足될 때에는 그는 生産的인 人間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때에 그는 社會的으로나 個人的으로 非生産的인 人間이 되는데 이러한 人間의 狀況이 疎外된 狀態이다.¹²⁾ 즉 人間이 외부 세계와 進전한 社會關係를 形成할 수 없을 때 疎外를 느끼게 된다.¹³⁾ 그런데 Fromm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人間의 ‘基本欲求’란 다음의 5가지 欲求를 말한다.¹⁴⁾

- ① 關係에의 欲求(The need for relatedness)
- ② 超越에의 欲求(The need for transcendence)
- ③ 根源(定着)指向性的의 欲求(The need for rootedness)
- ④ 正體性的의 欲求(The need for identity)
- ⑤ 方向과 獻身에의 欲求(The need for a frame of orientation)

등이 그것이다.

①의 欲求는 能動的이고 生産的으로 他人을 사랑하려는 것¹⁵⁾, 살아 있는 他人과 結合하고 그들과 關係를 가지려는 欲求이며 ②의 欲求는 人間이 動物的인 性질을 넘어서 創造的인 人間이 되려는 欲求이며 ③의 欲求는 人間이 世界와 自然 및 他人과 紐帶感과 所屬感을 가지려는 欲求이며 ④의 欲

12) 崔定雄, 前揭論文, p. 57.

13) 前揭論文, p. 57.

14) 金炳翼(譯), 進전한 社會, 서울: 汎凡社, 1980, pp. 31-65.

15) 上揭書, pp. 31-66.

求는 人間이 個人的 主體性을 갖고자하며 獨特한 個人이 되고자 하는 欲求이며 ⑤의 欲求는 世界를 安定되고 一貫性있는 方式으로 知覺하고 理解할 수 있는 準據體制에 대한 欲求(方向性的 體制에 대한 욕구)이다.

Fromm은 이와 같은 欲求들의 充足되는 程度에 따라 다음의 6가지의 人間型이 形成된다고 한다.¹⁶⁾

- ① 自身을 克服하기 위해 他人에게 依存하는 受容(receptive) 志向型
- ② 모든 源泉이 자기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여 남을 搾取·支配하는 搾取(explosive) 志向型
- ③ 자기 것을 保有·貯蓄·節約하며 안정감을 찾으려는 구두쇠형인 貯藏(hoarding) 志向型
- ④ 人間을 사고 팔 수 있는 對象이나 단순한 商品으로 취급하는 個性을 잃은 平均人인 市場(marketing) 志向型
- ⑤ 죽고 부패한 것을 사랑하고 生命있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愛死(necrophilic) 志向型
- ⑥ 疎外를 克服하고 창조와 사랑으로 表現되는 性格으로 人間の 잠재능력이 充分히 發達된 것을 의미하는 生産(productive) 志向型등이다.

이와 같이 Fromm의 疎外概念은 人間性的 가장 깊은 根底와 連結되어 있다. 그에 있어서 疎外란 바로 人間精神의 自己分離요 自己否定이다. 그래서 自己와 他人과 世界로부터의 分離라는 個人意識으로 疎外가 나타난다. 이러한 疎外現象은 他人으로부터의 孤獨·孤立으로 自身에게는 無力과 無意味로, 모든 것으로부터는 無緣과 無望感을 느끼면서 점차 社會로부터 忌避하고 逃避衝動을 느끼면서 自身の 行動을 점차로 움츠러 들게 된다.¹⁷⁾ Fromm은 疎外된 人間을 「他人으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自己自身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知覺과 良識을 가지고 事物이 經驗되어지는 바로 그대로 경험하지만 自己自身과 외부세계를 生産的으로 連結시키지 못한다」고 描寫하고 있다.

2) 精神醫學의 側面에서 疎外는 精神의 不健康, 즉 精神疾患의 狀態요, 異常(Abnormal)의 狀態를 뜻한다.¹⁸⁾ 한 個人이 知的·情緒的으로 不安定하고 人格的으로 分裂되어 있고 性格上으로 缺陷이 있어서 個人的으로는 不幸하고 社會的으로 不適應인 生活을 할 때 이를 疎外된 狀態라고 말할 수 있다.¹⁹⁾ Fromm에 의하면 疎外된 人間은 不健全(insane)하며 그는 自己 自身을 自己 스스로와 他人들에 의해서 操縱될 수 있는 하나의 事物, 하나의 投資對象으로서 體驗하기 때문에 自我意識이 결핍된 人間이며 自我意識의 缺乏으로 같은 不安을 겪는 人間이라고 한다.²⁰⁾

3) 社會學的 側面에서 疎外는 社會의 構造的 變動으로부터 파악된다. 그래서 Durkheim은 Anomie의 現象 즉 無規範的(normlessness)이고 利己的(egoistic)인 狀況이 곧 疎外된 狀況이라고 말하며, Lewis Feuer는 疎外를 人間の 自己破壞의 行動이라고 보았다.²¹⁾ 價値體系가 혼란되고 不確實性和 無秩序, 社會的 混亂이 蔓연되면서 社會의 統一性이 깨어지고 社會로부터의 逸脫(Deviation)

16) 鄭其子, 自己疎外와 心理的 問題, 學術심포지움發表論文集, 曉星女大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83, pp. 42~43.

17) 崔定雄, 前揭論文, p. 58.

18) 崔定雄, 前揭論文, p. 58.

19) 崔定雄, 前揭論文, p. 58.

20) 金炳翼 역, 前揭書, p. 193.

21) Lewis Feuer, What is Alienation, New Politics, Vol. I. No. 3. (Spring), 1964, p. 132.

現象이 유발되고 社會成員은 社會的 關係가 斷切된다. 이것이 疎外的 狀況이며 疎外된 人間은 他人志向型 로보트의 人間으로 된다는 것이다. Melvin Seeman에게 있어서 疎外的 意味는 ① 無力(powerlessness) ② 無意味(meaninglessness) ③ 孤獨(isolation) ④ 無規範(normlessness) ⑤ 自己疎遠(self-esrtangement) 등으로 파악된다.

4) 社會哲學的 側面에서 Rousseau는 그의 社會契約說에서 疎外를 民衆이 自己의 權利를 社會契約에 의해서 主權者에게 讓渡(Alienation) 혹은 拋棄라는 意味로 使用한다. Hegel에 있어서 疎外는 主觀과 客觀의 關係(subjekt-objekt Beziehung)로 파악되고 疎外를 物性(Dingheit), 物神崇拜(Fetishismus) 혹은 對象性(Gegenständlichkeit), 自己外化(selbst-Entäußerung)의 意味로 파악되며, Marx 理論에서 疎外란 Fromm의 해석에 의하면 自己自身の 行爲가 自身에 의해 支配되지 않고 自己위에 君臨하여 自己의 뜻에 反하는 異質的인 힘이 되고 마는 그러한 人間의 어떤 狀態를 가리키는 말이다.²²⁾

Jaspers는 “人間은 항상 스스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 以上の 것이다”라는 命題를 밑받침으로 現存(Dasein)과 實存(Existenz)을 엄밀히 區分하여 本來的인 自己存在(Selbstsein)인 實存에 反하여 現存은 止揚되어야 할 낮은 단계로 規定하는데 Jaspers에 있어서 疎外的 意味를 찾는다면 本來的인 自己인 實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現存이 바로 疎外된 人間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參考로 Jaspers의 實存의 뜻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① 自由를 통한 自己存在 즉 모든 外的인 制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獨自性을 유지할 수 있는 可能性 ② 現世界에 滿足하지 않고 限界狀況을 의식하면서 超越者와 연관되는 存在 ③ 眞理를 찾기 위해서 다른 實存과 사랑의 交際로 나아가려는 意志를 갖는 存在 ④ 實存은 理性을 통해서만 밝혀지며 理性은 實存을 통해서만 內容을 얻는 것²³⁾등이다.

5) 神學的 側面에서 疎外는 世俗化(Secularization) 혹은 聖에서 俗으로의 타락·부패 또는 終末의 意味를 갖고 있다.²⁴⁾ 普遍性·客觀性·抽象的 思惟에 대하여, 單獨者·主體性·實存的思惟를 強調하고 主體性을 眞理라고 파악한 憂愁와 孤獨의 基督教的 實存主義者 Sören Kierkegaard에 있어서 實存은 神앞에 홀로 서 있는 自己이다. 實存한다는 것은 神앞에서 自己를 自覺하고 참된 의미에서 自己回復(Wiederholen)하는 것을 의미한다. 實存한다는 것은 人間의 自己回復의 過程이다. Kierkegaard에 있어서 疎外的 意味를 찾는다면 有限者인 이 내가 서 있는 바닥이 虛無로서 意識되며 永遠을 잃고 不安과 罪에 苦悶하고 悔恨하고 마침내는 絶望에 빠진 채로 無限者와 만나지 못하는 狀況—이것이 바로 疎外狀況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教育學的 側面에서 疎外는 非人間化(Dehumanization)요, 沒個性化 혹은 人間性的 喪失을 意味한다.²⁵⁾

위에서 概觀한 바에서도 疎外的 意味內容은 결코 單純하지 않고 여러 立場에 따라 多樣하며 疎外

22) 崔定雄, 前揭論文, p. 61.

23) 姜大石, 疎外論의 方向, 學術심포지움發表論文集, 曉星女大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83, p. 10.

24) 崔定雄, 前揭論文, p. 61.

25) 上揭論文, p. 61.

의 現象도 오늘날 普遍的임을 알 수 있거니와 그러한 疎外狀態는 어떠한 特徵들을 갖는가에 대하여 Fromm은 1) 自我意識의 缺乏 2) 이로 인한 깊은 不安感 3) 劣等意識 4) 罪惡感등을 들고 있으며²⁶⁾, Karen Harney는 1) 自律性的 減少 2) 責任感의 缺如 3) 方向性的 喪失 등을 들고 있다.²⁷⁾ Melvin Seeman은 疎外의 樣相(疎外狀態)의 特徵으로 1) 無力感 2) 無意味性 3) 無規準性 4) 價值的 孤立 5) 自己疎遠 6) 社會的 孤立등을 들고 있다.²⁸⁾

2. 自我概念

自我概念(self-concept)은 自己와 環境에 대한 知覺을 결정하기 때문에 環境에 대한 독특한 適應樣式을 결정한다.²⁹⁾ 自己自身을 쓸모 없고 無價値하며 惡하다고 보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自我體制에 따라 行動하게 되며, 自我概念이 非現實的인 사람은 自己의 生活에서, 對人關係에서 非現實的인 方式으로 行動하게 된다.³⁰⁾ 金鳳詔 등의 研究에 의하면 學生들의 自我概念이 否定的이거나 自己와 教授에 대한 實際的 理想的 自我概念 간의 差異가 심하거나 否定的이면 相互 拒否的인 授授—學生關係가 形成될 可能性이 많고 學生들의 否定的 教授像이나 教授들의 否定的인 學生像이 選好的인 授授—學生의 人間關係形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³¹⁾ 이 自我概念은 Rogers의 性格理論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모든 경험을 이 自我概念에 관련지워 평가하고 또 自己像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한다.³²⁾ 또 Bloom에 의하면 自我概念과 教科成績 平均點 間에는 意味있는 正的 相關關係가 있다고 한다.³³⁾ 그러므로 自我概念은 個人的 適應과 관련되는 중요한 要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C 초기까지는 심리학에 있어서 自我는 비교적 무관심한 상태였다. William James가 처음으로 自我(self) 또는 自己(ego)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自我를 認知되는 自我(self as known)와 認知하는 自我(self as knower)로 양분하여 설명했다.³⁴⁾ 20C 중기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自我概念도 오늘날 심리학자들 사이에 그 概念의 規定과 機能에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Hall과 Lindzey는 자아개념을 첫째, 人間行動의 決定因子로서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의 集群으로, 둘째, 한 개인이 그 자신을 對象化해서 지각한 自己自身에 대한 태도나 느낌의 總體로 둘로 구분해서 보았으며³⁵⁾ Rogers는 “自我概念이란 個人的 意識속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容認된 自我知覺의 조직된 形態”³⁶⁾로 보았고 Combs는 “個人이 그가 무엇인가라고 아는 바가 곧 自我概念”이라고 했

26) 金炳翼譯, 前揭書, pp. 193-197.

27) 鄭芳子, 前揭論文, pp. 45-50.

28) 鄭文吉, 前揭書, p. 206.

29) 鄭元植, 李相魯, 李星珍, 現代教育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1981. p. 229.

30) 鄭元植, 自我概念檢査 檢査法要綱, 서울: 코리언테스팅센터, 1968, p. 1.

31) 金鳳詔·李熙直·金慶麟, 授授—學生 人間關係에 관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제8권, 제1호,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5, p. 15.

32) 홍대식(역), 심리학개론 (서울: 博英社, 1982) p. 465.

33) 鄭元植·李相魯·李星珍, 前揭書, p. 70.

34) 李守龍, 集團相談이 自我概念變化에 미치는 效果, 指導相談, 제7집, 啓明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p. 21.

35) 上揭論文, p. 25.

36) 上揭論文, p. 25.

다.³⁷⁾Symonds에 의하면自我에 관한 ego와 self를 구분하면서 ego는 行動者로부터 內的 欲求充足을 위한 外界適應을 결정해 주는 性格部面이고 self는 自我의 관찰자로서 個人이 관찰하고 反應하는 것으로서의 ego라고 한다.³⁸⁾ Freud에 의하면 ego는 “id superego”와 함께 性格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직접 적응동을 지체(delay)하고 현실을 고려하는 작용을 한다.³⁹⁾ Jung은 Self는 性格의 中心으로서 그 주위에 다른 모든 體系가 무리지어 있고 self는 이들 體系를 함께 장악하여 性格의 統一성과 平衡과 安定성을 提供한다고 하며 self는 사람들이 계속 그 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드물게 도달할 수 있는 生의 目標이라고 한다.⁴⁰⁾

A. Adler는 “遺傳은 그에게 단지 어떤 能力을 준다. 환경은 단지 그에게 어떤 印象을 준다. 이 能力과 印象,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경험한 樣式—즉 이 經驗에 대한 그의 해석이—그 構成要素, 다시 말해서 生에 대한 그의 태도이며 이것이 외부세계와의 關係를 결정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創造的 自我를 내세웠다. 그에 의하면 創造的 自我는 人生에 意味를 부여하고 目標을 위한 수단과 마찬가지로 目標도 창조한다고 한다.⁴¹⁾

이와 같이 自我는 個人이 自己自身에 對해서 갖는 信念, 態度, 見解들의 總體⁴²⁾로서 個人의 行動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고 올바른 自我의 形成은 Jung의 말처럼 生의 目標이기도 하다. Hall과 Lindzey에 의하면 “自我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된다”⁴³⁾고 한다. 自我는 社會속에서 차지하는 役割(role)과 身分(status)에 의존하고 있다.⁴⁴⁾ 個體는 社會와의 相互作用과 自己가 社會集團에서부터 받은 承認(approval) 또는 拒否(denial)에 의해서 自己自身을 評價하는 方法을 學習하게 되며, 社會에 있어서의 役割과 身分의 變化가 새로운 自我概念을 生成케 한다.⁴⁵⁾ 따라서 集團內에서 個人의 位置는 그의 自我概念에 의해서 定해지기도 하지만 그 位置에 의해서 自我概念이 變化될 수도 있다. Abhidamma에서는 결코 영속적인 自我란 없으며 단지 오고 가는 過程들의 非人格의 集合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하며 自我로 나타나는 것은 신체부분들, 思考, 感覺, 欲求 記憶 등등의 總體라고 한다.⁴⁶⁾

한편 Combs와 Snygg은 自我概念의 構成要素를 個人의 全體 知覺場으로서의 自我概念인 현상적 환경, 개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현상적 自我, 개인이 갖고 있는 수 많은 知覺對象 中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知覺인 自我概念 등으로 보았고⁴⁷⁾, Fitt는 “한 개인이 그가 처해있

37) A. W. Combs & D. Snygg, Individual Behavior. 2nd ed., N. Y: Harper & Row Publishers, 1959. pp. 38~52.

38) 鄭元植, 李相魯, 李星珍, 前掲書, p. 241.

39) W. C. Crain, Theories of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0, p. 137.

40) 李相魯, 李寬鎔譯, 前掲書, pp. 130-139.

41) 上掲書, p. 177.

42) 上掲書, p. 177.

43) W. W. Purkey, The Self and Academic Achievement, Florida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uncil, Research Bulletin, 1967. v. 13, p. 3.

44) 辛爵基·姜泰周·申海雨, 大學生의 成就動機와 自我概念과의 關係, 學生研究 第5집, 東亞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4, p. 8.

45) 上掲論文, p. 9.

46) 李相魯, 李寬鎔(譯), 前掲書, p. 391.

47) 李寬龍, 前掲論文, pp. 25-26.

는 生活의 場에서 自己自身 및 그의 主體環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을 自我概念으로 정의하면서 그 構成要素로 身體的 自我, 道德的 自我, 性格的 自我, 家庭的 自我, 社會的 自我를 들고 있다.⁴⁸⁾

3. 學業成就度

學業成就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個人的 側面과 環境的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한 知的 變因과 非知的 變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⁹⁾

知的 變因이란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能力으로서 知能, 學習能力, 創意力 등이고 非知的 變因은 學習者로 하여금 學習活動을 하도록 유도하는 心理學的 次元의 學習動機의 問題로서 動機, 欲求, 不安, 成就, 抱負水準, 自我概念 등이 있다.⁵⁰⁾

이러한 變因들을 고려해 볼 때 學業成就도는 知能이나 適性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外的인 條件이나 個人的 情緒的 心理的 要因에 의해서도 左右됨을 알 수 있다. 朴容憲은 學生의 學習過程이 대부분 人間關係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人間關係를 맺느냐에 따라 學習者의 學習效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고⁵¹⁾ C. E. Moustakas는 學習의 效果를 가장 높일 수 있는 學급의 社會的 분위기는 어느 다른 要因에서 보다 人間關係에 의하여 造成된다고 하였다.⁵²⁾ 이와같이 學급에서의 人間關係는 學급의 성적 및 학생 개인의 성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學급에서의 疎外, 人氣의 問題는 個人的 教育的 環境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環境은 “유기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外的 條件과 要因의 總合⁵³⁾”으로서 한 個人을 둘러 싸고 있는 모든 人的·物的 條件과 狀況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은 物理的 條件에 그치지 않고 心理的으로 전환되어 個人에게 作用함으로써 人間의 特性에서 일어나는 變化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해 주는 要因이 된다.⁵⁴⁾

N. E. Gronlund는 만일 學生들이 自身이 그 集團의 社會關係속에서 他集團成員에 의하여 選擇을 받든가 혹은 그의 交友關係에 있어서 認定을 받게 되면 그 學生은 學급활동에 있어서 더 많은 努力을 하게 되며 同時에 이에 必要한 學校成績을 유지하기 위하여 努力하게 된다.⁵⁵⁾고 했고, C. B. Wellington은 被排斥兒와 人氣兒 間의 學力과 人性 間에 상당한 相關關係가 있다고 밝혔다.⁵⁶⁾

李熙道등의 研究에 의하면 能力에 관한 自我概念에 對하여 學業成績 上位集團과 下位集團 間에 有意한 차이가 있다. 즉 上位集團의 學生이 下位集團의 學生보다 能力에 대한 自我概念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⁵⁷⁾

48) 上揭論文, p. 26.

49) 李熙道, 金慶麟, 李明子, 大學生의 學業成績에 影響을 주는 要因,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6, p. 1.

50) 鄭元植, 李相魯, 李星珍, 前揭書, pp. 29-74.

51) 朴容憲, 學校社會, 서울:培英社, 1972, p. 102.

52) 上揭書, p. 110.

53) 鄭元植·李相魯·李星珍, 前揭書, p. 100.

54) 上揭書, p. 106.

55) E. Gronlund, Society in the Classroom,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p. 235.

56) C. B. Wellington & J. Wellington, The Under Achiever, Chicago, Rand McNally & Co., 1965, p. 23.

57) 李熙道·李明子, 上揭書, p. 8.

自我概念과 學業成績의 관계에 있어서 Purkey에 의하면 學業成績이 우수한 學生들은 自我概念이 肯定的이어서 自己自身을 價値있고 바람직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知覺하는데에 反해서, 學業成績이 不振한 學生들은 한결 같이 自我概念이 否定的이며 自信心이 부족하고 自己를 卑下하고 劣等感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他人이 자기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知覺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⁵⁸⁾

이상으로써 人間關係, 自我概念, 學業成績은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研究 方法

1. 對 象

이 研究의 對象으로 本校 제 1학년 605명에게 學科別로 社會測定檢査를 실시하여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을 (表-1)과 같이 선별하였다. 對象者中 一般學科 學生들은 다른 一般大學生들과 같으나 乘船學科(航海, 機關學科)學生들은 學校生活에 있어서 制度的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1. 卒業後 法定의 資格(海技士)과 專攻(航海學 또는 機關學) 分野에서 服務義務가 주어짐으로 그들의 장래 進路가 確定的이다.
2. 在學中 授業數가 면제되고 宿食이 官給된다.
3. 일정한 실습기간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全學生이 거의 全 教育期間을 통하여 校內의 기숙사 에 入舍하여 生活訓練을 받으면서 단체 생활을 營爲한다.
4. 校內外에서 制限을 입어야 하고, 入學과 同時에 全員이 海軍豫備士官生(ROTC)으로 編入되어 所定의 軍事訓練을 받는다.
5. 이에 따라 學校生活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엄격한 規範的 統制下에 놓이게 된다.

1) 人氣者集團의 選定

人氣者集團은 各 學科內에서 學科 同級生들로부터의 被選擇 回數가 가장 많은 學生과 그 다음 順位의 學生들로 30名을 선발하였다.

2) 疎外者集團의 選定

疎外者集團은 學科 同級生들로부터 한 번도 被選되지 않은 學生들로 40名을 選拔하였다.

社會測定檢査에서 한 번도 被選되지 않았다고 해서 他們을 모두 疎外者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社會測定檢査는 '개인이 속해있는 친구관계의 數를 測定하는 것이지 친구관계의 強度를 測定하는 것은 아니며, 社會的 地位(social status)가 강한 사람이 반드시 內的·心理的 成熟이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Wigdor의 발견에 의하면 "낮은 社會測定點數를 받은 사람은 그들의 情緒를

58) 鄭元植·李相魯·李星珍, 前掲書, p. 72.

59) 李永澤, 韓國海洋大學生의 問題傾向에 對한 調查研究, 學生指導研究, 第1輯, 韓國海洋大學 學生指導研究 所, 1975, p. 13.

통제하기가 더 어렵고 좀 더 자기 중심적이고 좀 더 침울하고 충동적이며 상황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러한 상황에 흔히 반응할 수 없다”고 하고 “孤立兒는 集團에서 냉담한 거부나 명백한 적의, 노골적인 혐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또 孤立者集團은 人氣者集團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러한 孤立者集團은 Seeman이 말한 社會的 孤立이라는 의미에서 他人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疎外者들이라고 볼 수 있다. Fromm은 人間이 외부 세계와 健全한 社會關係를 형성할 수 없을 때 疎外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表-1〉 研究對象의 標準理況

	人氣者集團	疎外者集團	計
乘 船 科	18	27	45
一般學科	12	13	25
計	30	40	70

2. 道 具

이 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는 鄭元植이 제작한 自我概念檢査와 學校의 正規 成績 評價考査, Social Metrics 등이다.

1) 自我概念檢査

이 研究에서 使用된 自我概念檢査는 鄭元植이 표준화한 自我概念檢査이며 이는 한 個人이 그 처해 있는 生活의 場에서 自己自身 및 그의 주위 環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檢査로서 自己의 身體事項, 家族事項, 性格的인 面, 道德的 觀念, 그리고 對人關係의 5가지 外的側面에서 그 個人의 同一性, 自我의 受容 및 滿足 그리고 外的 行動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 內容은 ① 自我評價點數(S. C) ② 總自我肯定點數(T. P.) ③ 自我同一性點數(I) ④ 自我受容點數(II) ⑤ 自我行動點數(III) ⑥ 신체적 自我點數(A) ⑦ 도덕적 自我點數(B) ⑧ 性格의 自我點數(C) ⑨ 가정적 自我點數(D) ⑩ 社會的 自我點數(E) ⑪ 總自我變散點數(T. V.) ⑫ 外的變散點數(R. V.) ⑬ 內的變散點數(C. V.) ⑭ 分布點數(d) 등 14개 要因의 點數를 算出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學校 正規 成績評價考査

이 研究에 使用된 성적 평가 도구는 學校에서 실시하는 定期考査를 그대로 이용했으며 그 考査의 結果로 나타난 學期末의 評價點數를 사용했다.

4) Social Metrics(社會測定檢査)

社會測定檢査는 학과내에서 學生들의 人間關係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學生들 相互間의 被選擇 및 被排斥 상황을 측정하였다. 이 檢査(부록 I 참조)의 內容은 모두 4個 問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은 1, 3번의 2個 問項을 이용했다.

各 問項別 選擇人員數는 모래노에 의하면 “無制限의 選擇 또는 拒否를 許容해야 한다⁶⁰⁾”고 하나 몇몇 特種인이 수 많은 다수를 선택함으로써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순을 피하고 결과 처리에 있어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選擇許與數를 5名까지로 했다.

60) 金在恩, 研究方法, 서울: 敎育科學社, 1981, p. 496.

또 選擇의 順位에 있어서 비중의 문제는 精神測定經驗에서 그러한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 주었다는 Campbell, Lindzey, Borgatta 등의 견해⁶¹⁾에 따라 선택 순위에 아무런 비중을 두지 않았다.

3. 方法 및 節次

疎外者들의 特徵을 파악하기 위하여 Social Metrics 檢査의 實施 結果, 學科에서 同級生들로부터 한 번도 被選되지 않은 學生들을 研究對象으로 선발하고, 또 그 비교를 위하여 Social Metrics 檢査의 實施 結果, 學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學生들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學生들에게 自我概念檢査를 다시 實施하였다. 成績評價考査는 學校의 日程에 따라 進行된 中間考査와 期末考査의 結果를 이용했다.

4. 資料處理

成績과 自我概念點數는 平均과 편차를 구하고 두 集團間에 있어 各點數의 差를 t檢證으로써 有意度를 測定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學業成就度 比較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間에 있어 學業成就度의 結果는 <表-2>와 같다.

<表-2> 人氣者集團과 疎外集團의 學業成就度比較

	人 氣 者 集 團			疎 外 者 集 團			t
	N	M	SD	N	M	SD	
乘 船 學 科	18	2.89	0.45	27	2.60	0.40	2.233*
一 般 學 科	12	2.97	0.53	13	2.42	0.40	2.812**
計	30	2.92	0.76	40	2.54	0.41	3.502**

*p<.05 **p<.01

<表-2>에서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 間의 學業成就度의 結果를 보면 전체적으로 人氣者集團이 學業成就도가 높으며 그 差는 1% 有意水準에서 意味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乘船學科와 一般學科를 비교하면 둘 다 意味있는 差로써 人氣者集團이 높은 學業成就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有意水準의 差의 程度는 一般學科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疎外者集團은 人氣者集團에 비하여 學業成就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J. Warrers, Group Guida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61, p. 105.

2. 自我概念檢査結果比較

이 研究에서 實施한 自我概念檢査는 모두 14個의 문항으로 構成되어 있고 疎外者集團의 特徵을 파악하기 위하여 問項別로 分析하였는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과의 全體的 比較

乘船學科와 一般學科를 合한 모든 學生의 自我概念檢査의 結果는 <表-3>과 같다.

<表-3>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의 自我概念檢査結果比較 (全體學生)

	SC	TP	I	II	III	A	B	C	D	E	TV	CV	RV	D
人氣者集團 총점	1031	9742	3488	3052	3202	2090	1909	1873	2002	1869	1238	682	565	3082
평균	34.4	324.7	116.3	101.7	106.7	69.7	63.6	62.4	66.7	62.3	41.3	22.7	18.8	102.7
N ₁ =30 편차	4.6	17.4	7.2	7.2	6.1	5.5	5.3	6.3	5.5	6.4	10.0	5.5	5.4	21.3
疎外者集團 총점	1366	12474	4425	3939	4114	2652	2541	2440	2482	2363	1620	890	730	3851
평균	34.2	311.9	110.6	98.5	102.9	66.3	63.5	61.0	62.1	59.1	40.5	22.3	18.3	96.3
N ₂ =40 편차	4.6	21.2	7.6	9.0	8.7	6.3	4.6	6.2	5.9	7.3	10.6	6.5	4.9	21.6
t	0.16	2.67*	3.16*	0.51	2.03**	2.32**	0.08	0.92	3.30*	1.90	0.32	0.27	0.40	1.22

*p<.01, **p<.05

가) 自我評價點數(S. C.)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自己批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正常的이며 건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나 個人의 방어적인 特性을 나타내는 것이다.”⁶²⁾
 <表-3>에서 보면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에 있어 의미있는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總自我肯定點數(T. P.)

“이 점수는 自我概念檢査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점수이다. 이 점수가 그 個人의 전체적인 自己尊重感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총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肯定的이고 가치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가지고 행동한다. 反對로 이 총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自己를 무가치한 人物로 보며 종종 不安을 느끼고 침울해 있으며 不幸스럽게 느낀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 確信을 갖지 못하며 그의 行動도 不安定하고 소극적이 된다.”⁶³⁾

<表-3>에서 보면 人氣者集團이 疎外者集團에 대해 T.P.가 더 높으며 1% 有意水準에서 意味있는 差를 보이고 있다.

다) 自我同一性點數(I)

62) 鄭元植, 前揭書, p. 3.

63) 上揭書, p. 3.

“이 점수는 한 個人이 현재의 自己를 어떠한 存在로 知覺하는 지로 알아 보는 尺度이다...이 점수가 높은 사람일 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自背心이 있으며 물己의 처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反對로 점수가 낮으면 自己自身을 확대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비굴하거나 열등감을 갖고있다.”⁶⁴⁾

〈表-3〉에서 보면 自我同一性點數에 있어서는 人氣者集團이 疎外者集團에 비해 더 높으며 1% 有意水準에서 意味있는 差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自我受容(Ⅱ)

“이 점수는 한 個人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 가를 알아본다. 즉 그 個人의 자기 만족과 혹은 그 個人의 自我受容 정도를 반영해주는 점수가 된다.”⁶⁵⁾

〈表-3〉에서 보면 人氣者集團이 疎外者集團에 비해 自我受容點數가 더 높으나 그 差는 意味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自我行動(Ⅲ)

“이 점수는 그 個人이 行動하는 方式(적극적, 소극적)이나 실제로 행동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尺度이다...따라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自己生活의 場에 알맞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낮은 점수의 사람은 그 個人의 行動이 自己의 환경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表-3〉에서 보면 自我行動에 있어서 人氣者集團의 점수가 疎外者集團의 점수에 비해 더 높으며 그 差는 5% 有意水準에서 意味있음을 알 수 있다.

바) 身體的 自我(A)

이 점수는 自己身體에 대한 自身の 견해, 건강 상태, 身體的 외모, 재능 및 性的 매력 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自己의 신체상황을 肯定的으로 보는 사람이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기의 신체 사항에 對해서 열등감을 갖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表-3〉에서 보면 신체적 自我(A)를 보면 人氣者集團이 疎外者集團에 비해 더 높은 點數를 얻고 있으며 그 差도 5% 有意水準에서 意味있음을 알 수 있다.

사) 道德的 自我(B)

“이 점수는 個人의 道德的인 준거체계가 어떠한 가를 말해 준다. 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의 道德的 基準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은 사람은 그의 도덕적 기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⁸⁾

〈表-3〉에서 보면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은 道德的 自我點數를 거의 비슷하게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性格的 自我(C)

64) 上揭書, p. 3.

65) 上揭書, p. 3.

66) 上揭書, pp. 3-4.

67) 上揭書, p. 4.

68) 上揭書, p. 4.

“이 점수는 個人的 自己尊重感, 한 사람으로서의 自足的 느낌, 自己性格에 對한 者身의 評價를 意味하는 것이다...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安定되고 바람직한 性格特徵을 所有하고 있다고 보는 反面에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自己者身의 性格이 不安定하고 不安한 心理狀態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⁹⁾

〈表-3〉에서 보면 人氣者集團이 疎外者集團에 비해 性格的 自我點數가 더 높으나 그 差는 意味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 家庭的 自我(D)

“이 점수는 한 가정의 一員으로서 그 個人이 얼마나 平安한 마음으로 있으며 自己의 人間的인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얼마나 圓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수가 높으면 自己自身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不利나 갈등이 해소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反面에 점수가 낮은 사람은 일단 그 가족에 대한 불만족, 불화, 갈등적, 대감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⁷⁰⁾

〈表-3〉에서 가정적 자아를 보면 人氣者集團이 疎外者集團에 비해 높은 點數를 얻고 있으며 그 差는 1% 有意水準에서 意味있음을 알 수 있다.

차) 社會的 自我(E)

“이 점수는 他人과의 人間關係에서 자신이 보는 觀念體制를 陳述해 준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對人關係에서 圓만한 社會生活을 하고있는 것이며, 반대로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對人關係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疎外되어 있다거나 除外된 불행한 人間關係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表-3〉에서 보면 社會的 自我 點數(E)는 人氣者集團이 疎外者集團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나 그 差는 意味있는 差에서 조금 모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 總變散點數(T. V.)

“이 점수가 높으면 그 사람의 自我概念은 恒常성이 결여되고 統一性和 統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²⁾

〈表-3〉에서 보면 總變散點數는 두 집단 間에 있어 거의 差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타) 外的變散點數(R. V.)

“이 점수는 A. B. C. D. E. 各 生活의 場에서 나타난 점수들이 어느 정도의 偏差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⁷³⁾

〈表-3〉에서 R. V.를 보면 두 集團間에 있어 거의 差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파) 內的變散點數(C. V.)

“이 점수는 內的自我準據體制에 의하여 分類된 自我同一性(I), 自我滿足(II), 自我行動(III), 점수들 間에 어떻게 점수가 偏差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⁷⁴⁾

69) 上揭書, p. 4.

70) 上揭書, p. 4.

71) 上揭書, p. 4.

72) 上揭書, p. 4.

73) 上揭書, p. 4.

74) 上揭書, p. 4.

〈表-3〉에서 보면 C, V, 에서나 I, II, III의 分布에 있어서나 두 集團間에 있어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 分布點數(D)

“이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가 自己者身에 대해서 한 말이 確實하고 自己의 意思가 分明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點數가 낮은 사람은 自己陳述의 曖昧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自己 방어적이며 境界심이 많은 자아개념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⁷⁵⁾

〈表-3〉에서 보면 分布點數(D)에 있어 疎外者集團에 비해 人氣者集團이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나 그 差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以上으로 疎外者集團은 人氣者集團과 비교하여 家庭的 自我(D), 身體的 自我(A), 自我行動(III) 自我 同一性(I), 總自我肯定點數(T.P.)에서 意味있는 差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疎外者集團에 비하여 가족 상호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의 신체 사항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환경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否定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확대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疎外者集團은 人氣者集團에 비하여 自己自身的 價値에 대해서 회의이며, 自己를 無價値한 人物로 보며 종종 不安을 느끼고 침울해 있으며 不幸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道德적 기준은 差異가 없다.

〈表-4〉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의 自我概念檢査結果比較 (一般學科)

	SC	TP	I	II	III	A	B	C	D	E	TV	CV	RV	D
人氣者集團 總점	409	3922	1404	1224	1294	833	767	779	792	752	455	269	196	1211
평균	34.1	326.8	117.0	102.0	107.8	69.4	63.9	64.9	66.0	62.7	37.9	22.4	16.3	100.9
N ₁ =12 편차	5.5	21.2	8.8	8.6	6.2	3.6	5.1	5.9	5.6	6.6	7.4	4.0	3.5	23.5
疎外者集團 總점	459	4087	1424	1311	1352	856	824	809	791	807	553	302	251	1318
평균	35.3	314.4	109.5	100.8	104.0	65.8	63.4	62.2	60.8	62.1	42.5	23.2	19.3	101.4
N ₂ =13 편차	4.6	20.5	7.1	8.9	7.4	6.3	5.9	5.5	6.5	7.0	7.2	4.3	3.5	16.2
t	0.57	1.42	2.25*	0.33	1.33	1.67	0.22	1.14	2.05	0.21	1.51	0.462	2.058	0.060

*p<.05

〈表-5〉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의 自我概念檢査 結果比較 (乘船學科)

	SC	TP	I	II	III	A	B	C	D	E	TV	CV	RV	D
人氣者集團 總점	622	5820	2084	1828	1908	1257	1142	1094	1210	1117	783	413	369	1871
평균	34.6	323.3	115.8	101.6	106.0	69.8	63.4	60.8	67.2	62.1	43.5	22.9	20.5	103.9
N ₁ =18 편차	3.8	14.1	5.8	6.1	6.0	6.5	5.5	6.0	5.4	6.2	10.9	6.3	5.8	19.5

75) 上揭書, p. 4.

疎外者集團	총점	907.0	8387.6	3001.0	2628.0	2762.0	1796	1717	1631	1691	1556	1067	588	479	2533
	평균	33.6	310.6	111.1	97.3	102.3	66.5	63.6	60.4	62.6	57.6	39.5	21.8	17.7	93.8
	N ₂ =27 편차	4.4	21.4	7.7	8.8	9.2	6.4	3.8	6.5	5.4	7.0	11.8	7.3	5.3	23.4
	t	0.78	2.20**	2.19**	1.79	1.50	1.68	0.14	0.21	4.18*	2.20**	1.14	0.52	1.65	1.50

*p<.001, **p<0.5

2) 乘船學科(航·機關學科)와 一般學科에 있어서의 人氣集團과 疎外者集團의 比較

一般學科에 있어서의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의 比較는〈表—4〉와 같고, 乘船學科에 있어서의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의 比較는〈表—5〉와 같다. 이 두 表를 보면 一般學科와 乘船學科에 있어서의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즉 一般學科의 경우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 間의 문항을 보면 自我同一性(I)에서만 意味있는 差를 보일 뿐 다른 문항은 意味있는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乘船學科의 경우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 間에 있어 總自我肯定點數(T.P.), 自我同一性點數(I), 家庭的自我(D), 社會的 自我(E)에서 意味있는 差를 보여주고 있다. 또 特記할만한 것은 變散性點數(T.V., C.V, R.V)가 一般學科의 경우 人氣者集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乘船學科의 경우, 疎外者集團은 人氣者集團에 비하여 對人關係에서 成功하지 못하고 不幸한 人間關係에 있고 家庭에 더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自己自身을 확대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一般學科의 경우 疎外者集團은 人氣者集團에 비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가족과의 융화, 對人關係에서의 孤立感등을 차이나게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一般學科의 경우 疎外者集團이 自我概念의 恒常성이 流動되는데 비해, 乘船學科의 경우 人氣者集團이 自我概念의 恒常성이 流動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 差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一般學科와 乘船學科의 경우에 있어 變散性點數의 분포 경향이 정 반대이기 때문에 유추한 것이다)

〈表—6〉에서 一般學科와 乘船學科의 疎外者集團 間의 點數差를 보면 모든 문항에 있어서 모두 意

〈表—6〉 乘船學科와 一般學科의 疎外者集團의 自我概念檢査結果比較

	SC	TP	I	II	III	A	B	C	D	E	TV	CV	RV	D
승선학과 총점	907.0	838.7	3001	2628	2762	1796	1717	1631	1691	1556	1067	588	479	2533
평균	33.6	310.6	111.1	97.3	102.3	66.5	63.6	60.4	62.6	57.6	39.5	21.8	17.7	93.8
N ₁ =27 편차	4.4	21.4	7.7	8.8	9.2	6.4	3.8	6.5	5.4	7.0	11.8	7.3	5.3	23.4
일반학과 총점	459	4087	1424	1311	1352	856	824	809	791	807	553	302	251	1318
평균	35.3	314.4	109.5	100.8	104.0	65.8	63.4	62.2	60.8	62.1	42.5	23.2	19.3	101.4
N ₂ =31 편차	4.4	21.4	7.7	8.8	9.2	6.4	3.8	6.5	5.4	7.0	11.8	7.3	5.3	23.4
t	1.09	0.52	0.61	1.14	0.57	0.32	0.13	0.73	0.30	1.86	0.82	0.62	0.96	1.03

味있는 差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社會的 自我(E)에서 意味있는 差를 보일 가능성이 보일뿐이다. 이로써 疎外者集團의 特徵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V. 結 言

이 研究의 目的은 學校社會集團內에 있어서 個人的 社會的 受容度を 把握하여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을 選定하고 이 두 集團을 比較하여 疎外者의 特徵을 발견함으로써 個人的 社會性指導를 위한 方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資料를 얻는 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研究課題가 설정되었다.

1.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 間에 있어 學業成就度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2.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 間에 있어 自我概念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이와같은 研究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各學科別로 社會測定檢査를 실시하여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을 선정하고 두 集團에 自我概念檢査를 실시했다. 研究課題에 따라 나타난 結果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疎外者集團은 人氣者集團 보다 學業成就度는 t檢證 結果 意味있는 差가 나타났다.
2. 疎外者集團과 人氣者集團 間의 自我概念檢査의 結果를 t檢證한 結果 總自我肯定點數(T.P.), 自我同一性(I), 自我行動(II), 身體的 自我(A), 家庭的 自我(D)에서 意味있는 差가 나타났다.

3. 自我概念檢査의 結果를 本校의 乘船學科와 一般學科로 구분해 보면 乘船學科는 人氣者集團과 疎外者集團間에 總自我肯定點數(T.P.), 自我同一性點數(I), 家庭的 自我(D), 社會的 自我(E)에서 意味있는 差가 나타났고 一般學科는 自我同一性(I)에서만 意味있는 差가 나타났다.

이상의 結果로써 이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結論이 가능하다.

첫째, 疎外者集團은 學業成就에 있어 人氣者集團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둘째, 疎外者集團은 人氣者集團에 비하여 家族相互間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체사항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환경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否定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自己自身을 학대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道德的 基準은 차이가 없다.

셋째, 本校의 乘船學科의 疎外者集團은 一般學科의 疎外者에 비하여 家族相互間에 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對人關係에서의 疎外에 더 關心을 쏟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自己自身을 학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은 비슷함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疎外者集團의 特徵을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자 한다.

1. 學業成就도가 낮은 學生들에게 學業向上을 위한 끊임 없는 指導가 必要하다.
2. 疎外者集團에게 集團相談을 실시하여 身體事項에 대한 열등감, 環境에 대한 소극적·否定的 對應行動,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除去하여 自信感을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다.
3. 疎外者集團에게 家族相互間에 關係에 대해서 集團指導를 實施할 必要가 있다.

參 考 文 獻

1. 姜大石, 疎外論의 두 方向, 學術심포지움 發表論文集, 曉星女大 學生生活 指導研究所, 1983.
2. 姜文姬, 自我概念의 形成過程에 관한 發達心理學의 考察, 學生生活研究 卷2집, 京畿大學 學生生活研究所, 1982.
3. 金化中, 自我概念變化를 위한 心理教育의 接近, 學生生活研究 卷2집, 京畿大 學生生活研究所, 1982.
4. 金炳翼(譯) 健全한 社會, 서울: 汎友社, 1980.
5. 朴承吉, 現代社會의 疎外局面과 그 社會學의 理解, 學術심포지움 發表論文集, 曉星女大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83.
6. 朴容憲, 學校社會, 서울: 培英社, 1972.
7. 徐鳳延·李寬鎔·林承權, 精神衛生, 서울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5.
8. 辛舜基·姜周泰·申海雨, 大學生의 成就動機와 自我概念과의 關係, 學生研究 卷5집, 東亞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4.
9. 李克燦, 政治學, 서울: 法文社, 1975.
10. 李相魯·李寬鎔 譯, 性格의 理論, 서울: 中央適性出版部, 1981.
11. 李守龍, 集團相談이 大學生의 自我概念 變化에 미친 效果, 指導相談 卷7집, 啓明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12. 李永澤, 韓國海洋大學生의 問題傾向에 대한 請查研究, 學生指導研究 卷1집, 韓國海洋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5.
13. 李炯得, 人間關係訓練의 實際, 서울: 中央適性出版部, 1980.
14. 鄭文煥, 學級社會의 人氣者와 孤立者의 特性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15. 鄭文吉, 疎外論研究,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16. 鄭芳子, 自己疎外와 心理의 問題, 學術심포지움發表論文集, 曉星女大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83.
17. 鄭元植, 人間과 教養, 서울: 培英社, 1975.
18. _____, 自我概念檢査 檢査法要綱, 서울: 코리아안테스팅센터, 1968.
19. 鄭元植·李相魯·李星珍, 現代教育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1981.
20. 崔定雄, 現代人의 疎外와 教育, 學術심포지움發表論文集, 曉星女大 學生指導研究所, 1983.
21. 홍대식(譯) 심리학 개론, 서울: 博英社, 1982.
22. Combs, A.W. & D. Snygg, Individual Behavior, 2nd.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9.
23. Crain, W.C. Theories of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0.
24. Fromm, E., Man for Himself, Thetford, Norfolk: Lowe & Brydone Printers Ltd., 1978.
25. " , Escape from Freedom, " 1977.
26. Gronlund, N.E., Sociometry in the Classroom,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27. Hjell, L.A. & Ziegler, D.J., Personality Theories, McGraw-Hill International Book Co., 1981.
28. Warters, J., Group Guidance, McGraw-Hill Book Co., 1960.
29. Wellington C.B. & Wellington, J., The Under Achiever, Chicago: Rand Mc Nally & Co., 1965.

〈부 록〉

()과 ()년 ()반 번호()
성명()

부탁의 말

다음의 물음들은 여러분이 우리 學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사귀고 있는가를 알아보아 보다 좋은 학과를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과에 있는 학생 가운데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이 결과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평가와 관련도 없습니다. 마음 편안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적는 방법〉

1. 질문마다 같은 사람이 적어도 좋고 각 항마다 5명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2. 서로 의논하거나 옆 사람이 적는 것을 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질문 1) 자기와 자리를 같이 앉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5명까지 적으세요.

특별히 같이 앉고 싶은 사람은 없다. 모두 다 같이 한번씩 앉고 싶다.

질문 2) 같은 기숙사방에서 생활하고픈 친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5명까지 적으세요.

질문 3) 분담활동을 할 때 같은 분담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5명까지 적으세요.

질문 4)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있다면 학과, 학년, 학교에 구애받지 말고 한 사람만 적습니다. 적을 때 학교 이름을 정확히 적을 필요가 없으며 친구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예) 다른학교 : 이찬수, 같은 학교 다른반 : 이길동

같은 학교 같은반 : 최동호, 김민환

다른학교 :

같은 학교 같은 반 :